

## 개띠와 인간의 역사

'93년 2월 문민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융실명제 파동과 사정바람이 거센데다 11월 19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발족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각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하여 대목을 노린 현수막을 내걸고 들뜬 기분을 돋우니 국제화, 지구촌화, 지역화, 세계화라는 구호가 피부에 실감나게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것이 올해의 묵은 해를 보내는 일반 시민의 심정일 뿐더러 오래전부터 우리는 국제화된 환경과 분위기에서 살아왔다.

봄이 지나면 여름으로, 가을을 맞으면서 겨울 준비를 함은 대자연의 섭리를 맞는 인간사의 양태인 것이다.

새해는 1994년이고 고유연호인 단기로 4327년이며 역사에 비취진 간지(干支)로는 갑술(甲戌)의 해이다.

새해가 왔다 하여 달력이나 바꾸는 것이 새해의 뜻이 아니고 지난 일을 반성하면서 새해

를 맞는 마음가짐에서 심신을 가다듬이 있어야 한다.

간(干)은 하늘(天)을, 지(支)는 땅(地)을 의미한다. 또한 간(干)은 나무 또는 줄기(幹)이다. 음양(陰陽)으로는 양(陽)에 속하고, 지(支)는 나뭇가지(枝)의 뜻풀이로 음(陰)에 속한다.

동양사상에서 음양의 조화와 자연섭리를 밝힌 것은 역사적이다.

또한 「간지」에 나타난 짐승의 생태와 생리를 가늠하여 인간과의 연관을 풀어온 유서(由緒)의 역사는 유구하다. 갑술의 해에 짐승의 띠는 “개띠”이다. “개”는 한문에서 견(犬)자와 구(狗)자로 나누어졌다. “견”은 큰 개에게 쓰여지며 “구”는 강아지에게 덧붙여진 글자이며 영어로는 dog로 단일화되어 있다.

첨단과학이 보편화된 현대에서도 올해의 띠가 무엇인가를 묻는 풍습은 고유한 유서에서 온 역사의 이삭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해 짐승의 띠를 기틀로 법도로서 세시기(歲時記)라 하여 간지를 썼



안승렬  
(노인유리원장)

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에 이바지하는 모델화하였다.

개와 인간과의 연관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였으며 종류(種類)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제한된 지면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견(犬)자와의 연관된 어휘를 몇 가지만을 옮기는데 “견마심(犬馬心)”이라는 글귀가 있다.

이는 과거 「군주시대」에서 신자(臣者)가 군부(君父)에게 충효(忠孝)를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친다는 뜻이다. 견마지치(犬馬之齒)라는 글귀는 윗분에게 자기의 나이를 낮추어 일컫는 말이고 견마지로(犬馬之勞)는 윗분에게 도움되는 일에 종사하겠다는 뜻으로 자기를 낮추는 고상한 말씨이며 평교 사이에서 서로 엇갈림이 있으면 「개 이빨 모양」의 표시로 견아(犬牙)의 형용사를 썼다.

이 말씨는 이미 역사의 갈피에 묻힌 말썬씨이나 고전을 간추림보다도 우리 언어상에 있었다는 사실과 마음에 앙금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쓴 것이고 위의 말뜻에서 “개”는 사람에게 충실하다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다.

섣달 그믐에는 망년회의 모임이 흔해진다. 이 망년회는 우리 고유의 풍습도 아니고 과거

일제시대와 급속한 산업사회에서의 부산물적인 행위이고 한해동안 쌓였던 긴장과 시름을 잊자는 뜻의 “망년”은 대표적인 일본식 조어로 사생아적인 어휘이다.

이번에 제네바에서 세계각국이 모여 UR협상 타결로 쌀개방을 수락하게 된 아픔과 시름이 우리에게 오니까 겹치게 되는 자기상실을 달래려는 술자리도 만만치 않음이 엄연한 현실!

쌀개방 확정이 일파만파격으로 축산물에게도 흠집을 낼 것 같으니 한숨이 그칠 날이 없을 것 같다. 첩첩산중에서 방황하는 몰골이 연상된다.

시름의 얘기는 이만하고 역사적인 사연으로 1394년 조선 조가 개성(송도)으로부터 지금의 서울인 한양(漢陽)으로 천도한 해가 개띠해인 갑술년이고 1994년이 정도(定都) 만 600년의 해이다.

또한 1910년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해가 같은 개띠해인 경술(庚戌)년으로 국치(國恥)를 당한 기억해야 할 해이고 그 다음의 개띠해인 1922년 임술(壬戌)년 정월에는 열혈 「애국지사」가 조직한 「무장 독립군」이 함경북도 경원(慶源)에서 일본의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 총독정치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8월 서로군정서, 한족회(대한독립단), 광복군 총본영 등 조국광복운동의 각단체들이 통합하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한통군부(大韓統軍府)(뒤에 통의부(統義府)로 고침)가 발족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광복운동에서 영수급인 김구(金九), 여운형(呂運亨) 선생 등이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한국노병회(韓國勞兵會)를 조직하여 선포하였다.

이외에도 노동연맹, 무산자청년회, 조선소년척후단의 조직으로 과거사에서 지금은 「쌀시장 개방 불가」의 입장을 정부가 급선회해 개방방침을 전격 발표한 것은 당혹한데다 전격적 방침 전환을 진작부터 알리고 대비했어야 하는 아쉬움에서 논어(論語)에 있는 인무원려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의 글귀가 새삼스러워진다.

멀리 보지 못하고 목전의 일을 소홀하게 처리한 결과는 반드시 근심을 당하고 곡경(曲境)을 치른다는 뜻을 옮긴다.

